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것이 되어 같이 산다는 것이 그렇게도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 말씀을 뼈가 저리도록 깨닫고, 뇌 속에 넣고 살아라.
2.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지구 세계를 창조하기 위함이었다. 지구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창조하기 위함이었다. 인간을 창조하신 뜻과 목적은 삼위를 절대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자신의 것으로 삼고 영원토록 같이 살기 위함이었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절대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아야 된다.
4.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합당한 자라도, 그가 하나님을 더 차원 높여 사랑하는 대로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보람을 최고로 느끼시며 좋아하신다.
5. 하나님도 성령님도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가 더 해 드리는 대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 좋아하신다. 창조 목적을 이룬 자가 그 목적을 더 차원 높게 이뤄 드릴수록 만족하며 기뻐하신다.
6. 하나님은 절대신이니라 절대로 더 사랑해 드리고, 환경도 배경도 갖추고 사랑해 드린다면, 기뻐하고 만족하시며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신다.

7. 하나님이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이뤄 드리는 자일수록, 하나님이 그를 통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영광을 받으신다.
8.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목적만 이뤄 드린다면, 그가 세상에 사는 자들 중에 최고로 큰 자다.